

## 아시아인의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 선 주 · 이 경 희<sup>†</sup>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 Effect of Asian Food Neophobia Scale and Food Involvement Scale on Food Choice Motives

Sun-Joo Kim and Kyung-Hee Lee<sup>†</sup>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 Abstract

Many factors influence food choices and many studies show personal traits that influence food choices, which can be called food neophobia and food involvement. For example, an individual's food-related tastes are thought to certainly influence personal food choic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food choice motives, the food neophobia scale (FNS) and food involvement scale (FIS) of Asians staying in or leaving Korea, and the relationship of those personal traits and food choice motives. Subjects (N=370)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food choice motives (15 questions), FNS (10 questions), FIS (12 questions) and socio-demographic conditions (10 questions). Item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nationality using ANOVA.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indicators of food choice motive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choice motives and food neophobia / food involvement. The result of analysis suggests that food neophobia and food involvement affect food choice motives and that food choice motives are unique to ethnicity and culture.

Key words : Asian, food neophobia scale, food involvement scale, food choice motives.

####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관광부(2007) 주관으로 2007년 2월 '우리 고유문화를 세계인의 문화명품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韓)스타일(HanStyle) 육성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한식을 포함한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로 육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조 하에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0월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하여 세계인이 한식을 즐기고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발표하였다. 성공적인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식을 선택하여 먹는 외국인이 음식을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음식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식에 대한 가치관이나 맛의 평가는 문화적 요소가 바탕이 되므로 외국인의 음식선택 속성과 입맛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외국인의 음식선택동기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맛, 가격, 이용경험 등 다양한 개인적인 동기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수들을 음식선택 동기(food choice motives)라고 한다. Furst *et al*(1996)은 소비자가 자신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음식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Steptoe *et al*(1995)은 음식선택에 관한 9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FCQ(Food Choi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으며, Lindeman & Vaananen(2000)은 FCQ를 활용하여 윤리적으로 생산된 음식의 선택 동기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음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매우 다양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음식선택동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푸드네오포비아, 음식관여도와 같은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Arvola *et al* 1999, Bell & Marshall 2003, Chen MF 2007, Pliner & Hobden 1992, Raudenbush & Frank 1999, Ritchey *et al* 2003, Tuorila *et al* 2001). 푸드 네오포비아는 신음식 혐오증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음식을 회피하는 경향(Pliner & Hodden 1992)으로 정의되고, 푸드네오포비아 지수(FNS: food neophobia scale)를 통하여 측정된다. FNS는 '민족'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Lee, Tel : +82-2-961-0847, Fax : +82-2-964-2537, E-mail : lkhee@khu.ac.kr

확인되었으며(Pliner & Hodden 1992, Tuorila *et al* 1994), 새로운 음식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관련된 연구도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푸드네오포비아는 음식에 대하여 기대하는 정도나 실제 좋아하는 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Pliner & Hobden 1992, Pliner *et al* 1998, Eertmans *et al* 2005), 건강한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Koivisto- Hursti & Sjoden 1997). 푸드네오포비아는 음식을 먹는 횟수, 소비량과도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연령, 성별, 집안 내력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Hwang & Lin 2010).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또는 개인의 관련성 정도를 의미하고(이와 안 1992), 음식관여도란 개인이 지각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관심 정도로 정의하며(Bell & Marshall 2003), 선행연구에서는 음식관여도를 식품과 식습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찰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음식관여도 정도는 음식관여도 지수(FIS : Food Involvement Scale)로 측정하며, 음식관여도 정도에 따라 음식선택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Eertmans *et al*(2005), 식품관여도와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본 Chen MF(2007) 등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동물보호, 건강 요인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식관여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음식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음식에 대하여 더 잘 구별해낸다고 보고하였다(Bell & Marshall 2003, Chen MF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의 아시아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지수를 조사하여 민족 간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의 차이를 알아내고, 이 두 요인이 음식선택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시기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총 370명을 대상으로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한 후, 이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를 선택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4개 국어 설문지 모두 외국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 원어민에게 설문지에 단어, 문장 표현 등의 오류가 없는지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아시아계 외국인의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음식선택동기에 관련된 15문항(Steptoe *et al* 1995, Kim *et al* 2010),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측정을 위한 10문항(Pliner & Hodden 1992), 음식관여도 지수 측정(Marshall & Bell 2004)에 관련된 1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1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음식선택동기, 푸드네오포비아, 음식관여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음식선택동기에 관련된 문항의 경우, 7점은 특정 음식선택동기가 ‘매우 중요하다’이며,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이다. 푸드네오포비아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7점이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한 것이며, 1점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성향이 약한 것이다. 음식관여도 문항에서 7점은 관여도가 높은 것이고, 1점은 관여도가 매우 약한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동남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Kim *et al* 2010) 결과, 음식선택동기 요인 중 조사대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위생, 건강, 에스닉푸드였으며, 윤희려(200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국에서 있었던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은 한식의 선호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등, 외국인에게 한식 선택은 친숙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음식선택동기 요인을 위생, 건강, 에스닉푸드, 친숙성으로 정하였다.

###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18.0)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음식 선택 동기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국적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의 평균 차이와 국적에 따른 음식선택동기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ANOVA)하고, 사후 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 중 어떠한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았다. 성별은 남자가 181명(48.9%), 여자가 189명(51.1%)으로 비율이 유사하였고, 연령은 20대가 207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3.8%), 10대(10.8%), 40대(7.6%), 50대 이상(1.9%)의 순이었고, 성별과 연령은 국적 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혼

**Table 1.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for food neophobia and food involvement**

Food choice motive	Health	H1. Is good for health H2. Is nutritious H3. Is organic food H4. Is high in fiber and roughage
	Familiarity	F1. Is what I usually eat F2. Is familiar F3. Is like the food I ate when I was a child
	Ethnic food	E1. Is the ethnic food E2. Curiosity about food what I have never eaten before E3. Repulsion against food I have never eaten before E4. Is the food that I have eaten abroad
	Sanitation	S1. Is the food prepared in hygienic conditions S2. Is the food made from fresh ingredients S3. The cleanliness of tableware S4. Check the expiration date
	FNS <sup>1)</sup>	I'm constantly sampling new and different foods. I don't trust new foods. If I don't know what is in a food, I don't try it. I like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Ethnic foods looks too weird to eat. At dinner parties, I will try a new foods. I am afraid to eat things I have never had before.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foods I will eat. I will eat almost anything. I like to try new ethnic restaurants.
FIS <sup>2)</sup>	I don't think much about food each day. Cooking or barbecuing is not much fun. Talking about what I ate or am going to eat is something I like to do. Compared with other daily decisions, my food choices are not very important. When I travel to some places, what I anticipate most is eating local foods there. I do most or all of the clean up after eating. I enjoy cooking for others and myself. When I eat out, I don't think or talk much about how the food taste. I do not like mix or chop food. I do most or all of my own food shopping. I do not wash dishes or clean the table. I care whether or not a table is nicely set.	

<sup>1)</sup> FNS: Food neophobia scale, <sup>2)</sup> FIS: Food involvement scale.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ection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Japan	38(38.2)
		China	54(50.0)
		Indonesia	61(59.2)
		Philippines	27(47.4)
	Female	Japan	63(61.8)
		China	54(50.0)
		Indonesia	42(40.8)
		Philippines	30(52.8)
Age(years)	Below 19	Japan	21(20.6)
		China	18(16.7)
		Indonesia	1( 1.0)
		Philippines	0( 0.0)
	20~29	Japan	65(63.7)
		China	90(83.3)
		Indonesia	36(35.0)
		Philippines	16(28.1)
	30~39	Japan	12(11.8)
		China	0( 0.0)
		Indonesia	47(45.6)
		Philippines	29(50.9)
40~49	Japan	1( 1.0)	
	China	0( 0.0)	
	Indonesia	16(15.5)	
	Philippines	11(19.3)	
50~59	Japan	3( 3.0)	
	China	0( 0.0)	
	Indonesia	3( 2.9)	
	Philippines	1( 1.8)	
Marital status	Single	301(81.4)	
	Married	69(18.6)	
Nationality	Japan	102(27.6)	
	China	108(29.2)	
	Indonesia	103(27.8)	
	Philippines	57(15.4)	

Table 2. Continued

Section	Variables	Frequency (%)
Religion	Christianity	50(13.5)
	Buddhism	113(30.5)
	Catholicism	6( 1.6)
	Islam	37(10.0)
	None	156(42.2)
	Others	8( 2.2)
Occupation	Student	216(58.4)
	Technician	50(13.5)
	Professional	14( 3.8)
	Public servant	18( 4.9)
	Housewife	29( 7.8)
	None	9( 2.4)
Educational background	Others	34( 9.2)
	~ High school	122(33.0)
	In or graduate college	58(15.7)
	In or graduate university	150(40.5)
Monthly income	In or graduate school	40(10.8)
	Less than ₩1,000,000	206(55.7)
	₩1,000,000~2,000,000	126(34.1)
	₩2,000,000~3,000,000	23( 6.2)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over ₩3,000,000	15( 4.0)
	Less than 1 month	11( 3.0)
	1~6 months	122(33.0)
	6 months~1 year	55(14.9)
Total	Over an year	182(49.2)
		370

여부는 미혼이 301명(81.4%), 기혼이 69명(18.6%)이었고, 국적은 중국 108명(29.2%), 인도네시아 103명(27.8%), 일본 102명(27.6%), 필리핀 57명(15.4%)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156명(42.2%), 불교 113명(30.5%), 기독교 50명(13.5%), 이슬람교 37명(10.0%), 천주교 6명(1.6%), 기타 8명(2.2%)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216명(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기능직(13.5%), 기타(9.2%), 주부(7.8%), 공무원(4.9%), 전문직(3.8%), 무직(2.4%) 순이었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40.5%),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33.0%), 전문대학 재

학 또는 졸업(15.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55.7%), 100~200만 원(34.1%), 200~300만 원(6.2%), 300만 원 이상(4%)의 순이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이 182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6개월 미만이 122명(33.0%), 6개월~1년 미만이 55명(14.9%), 1개월 미만이 11명(3.0%)으로 조사되었다.

## 2. 국적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지수 비교

국적에 따라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의 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푸드네오포비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고, 음식관여도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았으며, 두 지수 모두  $p<0.01$  수준에서 국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4.28점, 4.13점으로 평균 3.69점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일본과 중국은 3.15점, 3.40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지수를 나타내었다. 일본, 중국의 경우 음식관여도 지수는 4.91점, 4.54점으로 평균 4.47점보다 높았으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4.10점, 4.2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나라별로 분포를 알아보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Tuorila *et al* (2001)의 연구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low, medium, high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의 평균은 3.69점이었으며, 지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고, 지수가 낮은 그룹의 평균은 일본,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은 그룹의 평균은 4.37점으로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은 그룹의 평균은 2.61점으로 가장 낮아 전체 평균은 3.15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일본 조사대상자의 약 70%인 71명이 지수가 낮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필리핀은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의 전체 평균이 4.13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수가 높은 그룹의 평균은 4.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수가 낮은 그룹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2.70점으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가 4개국 중 가장 컸다.

음식관여도의 경우, 평균은 4.47점으로 지수가 높은 그룹의 경우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수가 낮은 그룹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의 순으로 낮았으며, 두 집단 모두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 음식관여도 지수가 높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관여도가 낮은 응답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조용준 등 2011) 음식에 대한 제약이 많아 새로운 음식에 대하여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았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낮아 음식관여도 지수는 가

Table 3. The average of FNS and FIS according to nationality

Nationality	Average	High group		Low group		
	Mean±S.D	Mean±S.D	N (%)	Mean±S.D	N (%)	
FNS <sup>1)</sup>	Japan	3.15±1.03 <sup>b</sup>	4.37±0.61 <sup>ab3)</sup>	31(30.4)	2.61±0.64 <sup>b</sup>	71(69.6)
	China	3.40±0.80 <sup>b</sup>	4.15±0.39 <sup>b</sup>	44(40.7)	2.89±0.56 <sup>ab</sup>	64(59.3)
	Indonesia	4.28±0.79 <sup>a</sup>	4.50±0.62 <sup>a</sup>	87(84.5)	3.01±0.41 <sup>a</sup>	16(15.5)
	Philippines	4.13±1.10 <sup>a</sup>	4.64±0.71 <sup>a</sup>	42(73.7)	2.70±0.68 <sup>b</sup>	15(26.3)
	<i>F</i> value	34.291 <sup>**</sup>	5.504 <sup>**</sup>		4.015 <sup>**</sup>	
FIS <sup>2)</sup>	Japan	4.91±0.88 <sup>a</sup>	5.36±0.55 <sup>a</sup>	71(69.6)	3.88±0.55 <sup>b</sup>	31(30.4)
	China	4.54±0.58 <sup>b</sup>	5.00±0.44 <sup>b</sup>	53(49.1)	4.10±0.27 <sup>a</sup>	55(50.9)
	Indonesia	4.10±0.73 <sup>c</sup>	5.01±0.58 <sup>b</sup>	24(23.3)	3.80±0.45 <sup>b</sup>	79(76.7)
	Philippines	4.25±1.11 <sup>c</sup>	5.44±0.69 <sup>a</sup>	21(36.8)	3.55±0.57 <sup>c</sup>	36(63.2)
	<i>F</i> value	19.381 <sup>**</sup>	6.207 <sup>**</sup>		10.895 <sup>**</sup>	

<sup>1)</sup> FNS : Food neophobia scale, <sup>2)</sup> FIS : Food involvement scale, <sup>3)</sup>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used Likert 7 scale.

장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리핀은 음식관여도 지수의 평균이 낮은 나라이지만, 지수가 높은 그룹의 음식관여도 지수는 5.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낮은 그룹은 3.55점으로 가장 낮아,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의 차이가 가장 컸다.

국가별 성별과 연령의 분포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고려하여, 각국의 성별과 연령 분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 분포는 일본은 남자 39명(38.2%), 여자 63명(61.8%), 중국은 남자 54명, 여자 54명의 비율이 같았으며, 인도네시아는 남자 61명(59.2%), 여자 42명(40.8%), 필리핀은 남자 27명(47.4%), 여자 30명(52.6%)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은 거의 유사하였다. 연령은 네 국가 모두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에 의한 국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은 낮게 나타나며(Tuorila *et al* 2001, Alley & Burroughs 1991, Kim *et al* 2011), 음식관여도는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Bell & Marshall 2003).

Flight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음식 등 다양한 자극에 접할 기회가 많고, 관심이 증가되어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IMF에서 발표한 2010년 세계 GDP 순위는 중국 2위, 일본 3위, 인도네시아 18위, 필리핀이 46위로 중국과 일본이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경우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음식관여도는 푸드네오포비아와 상반된 경향으로 음식관여도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예상과 같이 GDP 순위가 높은 중국, 일본의 경우 음식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국적에 따른 음식선택동기 비교

국적에 따른 음식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항목 15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표본적합도(KMO) 값이 0.7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값이 1850.376( $p < 0.01$ ), 자유도는 105로 분석되었으며,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국적에 따라 음식선택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건강 요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순으로, 친숙성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 요인과 친숙성 요인 모두 국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에스닉 푸드는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국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생 요인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일

Table 4. Factor analysis according to food choice motives

Indicator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Health	H1	0.746	0.814
	H2	0.815	0.782
	H3	0.798	0.797
	H4	0.798	0.796
Familiarity	F1	0.782	0.455
	F2	0.587	0.386
	F3	0.799	0.707
Ethnic food	E1	0.639	0.576
	E2	0.716	0.594
	E3	0.755	0.510
	E4	0.579	0.617
Sanitation	S1	0.789	0.786
	S2	0.747	0.787
	S3	0.780	0.779
	S4	0.810	0.772

Table 5. Food choice motives according to nationality

Factor	Japan	China	Indonesia	Philippines
Health	4.31 <sup>c</sup>	5.09 <sup>b</sup>	5.74 <sup>a</sup>	5.90 <sup>a</sup>
Familiarity	4.03 <sup>c</sup>	4.40 <sup>ab</sup>	4.64 <sup>a</sup>	4.06 <sup>bc</sup>
Ethnic food	4.00	4.21	4.13	4.25
Sanitation	5.78 <sup>b</sup>	6.11 <sup>a</sup>	6.30 <sup>a</sup>	6.04 <sup>ab</sup>

<sup>a~c</sup>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 < 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ed Likert 7 scale.

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위생 요인을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건강 요인이었다. 필리핀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친숙성 요인이 에스닉 푸드 요인보다 음식을 선택하는 동기에 있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음식선택동기와 푸드네오포비아, 음식선택동기와 음식관여도 사이의 상관관계

국적에 따른 음식선택동기와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일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ood choice motives and FNS/FIS

		Health	Familiarity	Ethnic food	Sanitation	FNS	FIS
Japan	FNS	-0.073	0.145	-0.311**	0.177	-	-0.322**
	FIS	0.334**	0.048	0.131	0.276**	-0.322**	-
China	FNS	-0.009	0.040	-0.092	-0.197**	-	-0.134
	FIS	-0.202*	-0.012	0.034	0.260**	-0.134	-
Indonesia	FNS	0.237*	0.063	0.372**	0.261**	-	0.259**
	FIS	0.238**	0.126	0.142	0.193	0.259**	-
Philippines	FNS	0.344**	0.446**	0.516**	0.501**	-	0.648**
	FIS	0.456**	0.302*	0.603**	0.604**	0.648**	-
Total	FNS	0.282**	0.194**	0.089	0.212**	-	-0.095
	FIS	0.052	0.042	0.169**	0.221**	-0.095	-

FNS : Food neophobia scale, FIS : Food involvement scale, \*  $p < 0.05$ , \*\*  $p < 0.01$ .

본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는 에스닉 푸드 요인과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 $r = -0.311$ )를 보였으며, 음식관여도는 건강( $r = 0.334$ )과 친숙성( $r = 0.276$ )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국은 푸드네오포비아와 위생 요인이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 $r = -0.197$ )를, 음식관여도와 건강( $r = -0.202$ )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위생( $r = 0.260$ ) 요인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도네시아는 푸드네오포비아와 에스닉 푸드( $r = 0.372$ ), 위생( $r = 0.261$ )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음식관여도와 건강( $r = 0.238$ )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필리핀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모두에서 네 가지 음식선택동기 요인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에스닉푸드와 위생 요인이 푸드네오포비아( $r = 0.516$ ,  $r = 0.501$ )와 음식관여도( $r = 0.603$ ,  $r = 0.604$ )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 나라에서 에스닉 푸드 요인이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푸드네오포비아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성향이므로, 다른 나라의 음식인 에스닉 푸드 요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Hwang & Lin(2010)의 연구 결과, 푸드네오포비아가 강한 사람들은 아시안 음식에 대하여 친숙해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생은 일본을 제외한 세 나라에서, 건강 요인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친숙성 요인은 필리핀에서만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음식관여도 지수와 음식선택동기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으며,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 요인은 네 나라에서 모두 음식관

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친숙성과 에스닉푸드 요인은 필리핀에서만, 위생 요인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에서 음식관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모든 조사자의 음식선택동기와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푸드네오포비아는 음식선택동기 중 건강( $r = 0.282$ ), 위생( $r = 0.212$ ), 친숙성( $r = 0.194$ )의 순으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음식관여도는 위생( $r = 0.221$ ), 에스닉푸드( $r = 0.169$ ) 요인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 지수는 음식선택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외국인 고객의 성격 특성을 파악한다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한 외국인들에게는 건강에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과 시설, 자국의 음식과 비슷한 음식 등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음식관여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위생과 그동안 외국인들이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우리의 전통 음식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에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조사 대상자 370명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48.9%)과 여성(51.1%)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연령은 20대가 55.9%로 가장 많았고, 국적은 중국(29.2%), 인도네시아(27.8%), 일본(27.6%), 필리핀(15.4%)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은 학생(58.4%)이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40.5%), 고등학교 졸업(33.0%), 전문대학 재학 또는 졸업(15.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10.8%) 순이었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음식선택동기 요인인 건강, 친숙성, 에스닉푸드, 위생 등 4개의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의 국적 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두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푸드네오포비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관여도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선택동기 중 건강 요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순으로, 친숙성 요인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두 요인 모두 국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에스닉푸드 요인은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생 요인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는 에스닉 푸드 요인과, 음식관여도는 건강과 친숙성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국은 푸드네오포비아와 위생 요인과, 음식관여도와 건강, 위생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도네시아는 푸드네오포비아와 에스닉 푸드, 위생 사이에, 음식관여도와 건강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필리핀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모두에서 네 가지 음식선택동기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적에 따라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두 지수는 음식을 선택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레스토랑에서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경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선택동기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레스토랑의 경우, 그 나라의 음식과 비슷한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여 친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음식관여도가 높은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건강이나 위생적인 환경 및 시설 등을 이용하여, 레스토랑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인의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에 대한 특성은 한식을 선택할 때에도 그 영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식을 세계화 시키는 데 참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문 헌

이학식, 안광호 (1992)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 접근. 법문사, 서울. p 43.

- 조용준, 우나라야, 김현정, 최현석 (2011) 세계의 식생활과 문화. 파워북, 서울. p 87.
- Alley TR, Burroughsa WJ (1991) Do men have stronger preferences for hot, unusual, and unfamiliar foods?. *J Gen Psychol* 118: 201-214.
- Arvola A, Lahteenmaki L, Tuorila H (1999) Predicting the intent to purchase unfamiliar and familiar cheeses: The effects of attitudes, expected liking and food neophobia. *Appetite* 32: 113-126.
- Bell R, Marchall DW (2003) The construct of food involvement in behavioral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ppetite* 40: 235-244.
- Chen MF (2007)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in relation to organic foods in Taiwan: Moderating effects of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 1008-1021.
- Eertmans A, Victoir A, Vansant G, Van den Bergh O (2005)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choice motives and food intake: Mediator and moderator relationship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6: 714-726.
- Flight Ingrid, Leppard Phillip, Cox David N (2003) Food neophobia and associations with cultural diversity and socioeconomic status amongst rural and urban Australian adolescents. *Appetite* 41: 51-59.
- Furst T, Connors M, Bisogni CA, Sobal J, Falk LW (1996)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 247-265.
- Hwang JH, Lin Ting-Ning (2010) Effects of food neophobia, familiarity and nutrition information on consumer acceptance of Asian menu item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and Management* 19: 171-187.
- Kim SJ, Cho MH, Lee KH (2010) A study on food choice motives focusing 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Korean J of Food Culture* 25: 141-149.
- Kim SJ, Park HJ, Lee KH (2011) The comparison of food neophobia scale and food involvement scale between Korean and East-South Asian. *Korean J Food Culture* 26: 429-436.
- Koivisto-Hursti UK, Sjoden PO (1997) Food and general neophobi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reported food choice: Familial resemblance in Swedish families with children of ages 7~17 years. *Appetite* 29: 89-103.
- Lindeman M, Väänänen M (2000) Measurement of ethical food choice motives. *Appetite* 34: 55-59.
- Marshall DW, Bell R (2004) Relating the food involvement



- scale to demographic variables, food choice and other construc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5: 871-879.
- Pliner P, Hobden K (1992)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trait of food neophobia in humans. *Appetite* 19: 105-120.
- Pliner P, Lahteenmaki L, Tuorila H (1998) Correlates of human food neophobia. *Appetite* 30: 97-115.
- Raudenbush B, Frank, RA (1999) Assessing food neophobia: The role of stimulus familiarity. *Appetite* 32: 261-271.
- Ritchey PN, Frank RA, Hursti U, Tuorila H (2003) Validation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he food neophobia scale (FN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ppetite* 40: 163-173.
- Steptoe A, Pollard TM, Wardle J (199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25: 267-284.
- Tuorila H, Lahteenmaki L, Pohjalainen L, Lotti L (2001) Food neophobia among the Finns and related responses to familiar and unfamiliar food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2: 29-37.
- Yoon HR (2005) A study o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foods for foreigners in different nationality. *Korean J Food Culture* 20: 367-373.
- 
- 접 수: 2012년 1월 14일  
최종수정: 2012년 4월 24일  
채 택: 2012년 4월 25일